

식약처, 통관단계 중국산 배추 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 통관단계 중국산 배추 매 수입 시 검사, 배추김치·절임배추도 검사 실시
- 국내 유통 중국산 제품도 수거검사 실시...검사 결과 공개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보도와 관련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8.24.~8.25)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통관단계 검사강화 조치(8.24) 이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실시 중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모든 중국 제조업체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정부와 소통하여 확인 중에 있다.

식약처는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철희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유행일 (043-719-2210)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책임자	과 장	남백상 (043-719-6251)
		담당자	사무관	최충렬 (043-719-6259)